

# 1990년대 이후 한국개신교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과 전망

박 성 관 목사(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강사)(문화/예술 3-1)

## I. 머리말 : 왜 1990년대 인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우리 개신교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1987년 이후 1990년대 들어 한국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한국사회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개신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적잖게 받았다. 1990년대 들어 개신교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민운동의 활성화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들어 다방면에서 시민사회운동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기독교관련 시민운동을 보면, 1990년 기독교농민회 조직화에 이어, 1991년 생명보전을 위한 우리의 고백(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3년에는 환경윤리 종교인 선언, 1994년에는 평화통일선언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있다.

둘째로 세계화다. 세계화를 국제 시스템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 본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민족과 종교를 상징하는 올리브나무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하지만, 올리브 나무에 집착하여 남을 배척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렉서스는 세계화 시장, 금융, 컴퓨터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드라마로 요약될 수 있다.<sup>1)</sup> 반면에 세계화를 장미와 가시의 이미지로 본 바우만(Zygmunt Bauman)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량해고,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 등이 세계화에 구조적인 결과<sup>2)</sup>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셋째로 신세대(N세대)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태어나, 1990년대 정보화와 대량소비시대에 대학생활을 하고 해외배낭여행을 경험한 세대로서 두 차례 경제위기(1997년 외환위기 및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한 세대라고 해서 'C세대'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한국사회 최초로 소비자 주권을 자각한 세대다. 2008년 촛불집회는 소비자로서 주권을 행사한 경우다. 1990년대 들어서 한국사회는 소비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sup>3)</sup> 다음세대를 이끌 이들은 한국교회의 변화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넷째로 종교다원적 상황과 내부구성원의 다양화다. 2005년 통계청의 통계에서 한국의 종교 활동 인구를 보면, 무(無)종교인이 46.9%이고, 유(有)종교인이 53.1%다. 그 가운데 개신교가 전체종교인구의 18.3%, 불교가 22.8%, 천주교가 10.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종교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다. 또한

1) 토머스L. 프리드먼, 신동욱, 『렉서스와 올리브나무1』(서울: 창해, 2000), 76이하 참조. 찰스 킴블은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점점 더 상호의존적으로 변해가는 세계 공동체의 복잡성과 종교 및 문화의 핵심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그에 따르면, 한때 정치, 문화, 기술, 금융, 국가안보, 생태계를 구분 짓던 분명한 선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음을 이해해야만 세계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찰스 킴블, 김승욱, 『종교가 사악해질 때』(서울: 에코리브르, 2005), 54.

2) 지그문트 바우만, 김동택,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서울: 한길사, 2003), 13.

3)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서울: 생각의 나무, 2007), 476~77.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정착으로 다문화 가정을 확대하였다. 현재 40만이 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비율이 무려 13%를 넘어섰다.

다섯째로 한국신학은 1990년대 들어 세계신학의 맥락에서 한국인의 신학을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는 문화신학과 토착화 및 민중신학을 아우르는 통전적 신학을 추구하려 하였다.<sup>4)</sup> 통전적 관점을 담지한 한국신학은 (죄와 문화로부터) 해방과 (환경과 생태의 회복을 위한) 창조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이를 통해 한국개신교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sup>6)</sup>

여섯째로 종교기관의 대형화와 기독교 매체의 다양화다. 1990년대 초에는 세계 최대 교회 10군데 가운데 절반 정도를 한국교회들이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대형 사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도시 지역의 천주교 성당들도 이미 대부분 대형화되었다. 강인철은 이 거대종교들(개신교, 불교, 천주교)은 오늘날 ‘가장 포괄적이며 다기능적인 시민사회조직’이 되었다고 본다.<sup>7)</sup> 1990년 들어, 개신교 신문매체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부 교단들의 교단지, 선교단체 및 기독교 관련기관들에서 신문 및 잡지 등 매체를 발행하였다.<sup>8)</sup> 또한 1990년부터 라디오 방송인 불교방송과 평화방송이, 1995년 케이블텔레비전 등장 이후 설립된 텔레비전 방송으로 기독교텔레비전(CTS)과 기독교방송텔레비전(CBS-TV), 기독교위성방송(C3-TV)을 비롯해 평화방송 TV와 불교텔레비전이 각각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sup>9)</sup>

1980년대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공정한 분배(fair distribution)와 공공선(common good)에 대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할만한 기반을 넓혀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과제 앞에서 한국개신교가 부정적으로 비쳐진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의 역사에 대한 지나친 비판적 인식이다. 안병직은 민족주의적 입장은 잘못된 역사인식이며, 앞으로 한국사회는 국제주의를 통해서만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이면에는 부정적 사고와 반기독교정서(antichristian)에 편승한 언론이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긍정적 역사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안적 미디어가 요구된다. 끝으로 일부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타자를 ‘적’으로서 악마화(demonization)하고 자기중심에서 나온 이분법적인 신앙에 기초한 공격적인 선교 방식

4) 한국문화신학회, 『한국종교문화와 그리스도』 (서울: 한들, 1996), 34.

5) 한국문화신학회, 위의 책, 91. 참조.

6)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동연, 2009), 99.

7) 강인철, “한국사회와 종교권력,” 137. 『역사비평』 77호 2006. 겨울.

8) 김보현, “교회와 신문”, 268, 기독교커뮤니케이션 포럼,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서울: 예영, 2004). 기독교 교양 월간지, 큐티 관련 잡지 등.

9) 권혁률, “교회와 방송”, 295, 기독교커뮤니케이션 포럼,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서울: 예영, 2004)

10) 정해구, “뉴라이트운동의 현실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229~230. 『역사비평』 2006. 가을. 각주 15)에 보면, 정해구는 뉴라이트운동이 과거 식민지근대화론과 중진자본주의론을 주장했고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주의의 적극적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 안병직을 그 사상적 대부로 내세우고 있다고 본다.

때문이다. 이분법적인 신앙관의 극복이 요구된다.

한국개신교에 대한 교회 밖의 비판적 시각은 우리 교회 내부의 분열과 모순도 있지만, 한국개신교가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면도 없지 않다. 교회 밖에서 한국교회 내부를 볼 때, 우리 개신교 내부의 다양한 교파·교단(근본주의 신앙신봉자들과 건강한 개혁주의 신앙신봉자들)으로 분열 및 혼재되어 있어서 한국 천주교와 달리 한국개신교의 하나의 실재(reality)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비판을 해명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사회에 개신교가 끼친 영향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모색해보겠다.

## II. 본문

### 1. 한국개신교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과 한계: 내부자의 성찰과 외부자의 관점

한국개신교의 내부자(insiders)의 시각에서 성찰(reflection: 자기객관화)을 통해 한국사회에 끼친 긍정적 영향과 교회 밖 외부자(outsiders)의 시각에서 한국개신교를 비판적으로 바라 본 부정적 시각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가? 외부자의 한계는 본질적인 부분인 신앙(신념과 다른), 은총, 계시, 회심, 신비체험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종교사회학적으로 정치나 경제 현실이 중요하겠지만 개신교인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관, 의례, 제도 등을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드러낼 때 전제가 되고 의식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종교사회학적인 정의만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외부자의 한국개신교에 대한 진리 이해의 부족에 따른 편협한 사고에 대한 외부자의 비판과 내부자의 자체 비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 내부의 편협한 이원론적 사고를 반성하고 외부자들이 채택하고 제기한 논점들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부자가 보기에 내부자로서 편향적 관점을 의식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당파성을 극복하고, 내부자의 관점에서 재해석이 요청된다.

종교사회학자인 오토 마두로(Otto Maduro)는 모든 종교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실재(reality)로 본다.<sup>11)</sup>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행위는 그것이 작용하는 사회적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훨씬 중요한데, 기독교인의 신앙행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의 틀 안에서 제한받거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개신교가 처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자신들의 신앙행위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가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행위가 진공상태에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 맥락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외부자의 비판을 수용한다면, 그 반대의 해석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와 함께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개신교인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한국사회를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의 이중적 가치관이 배어있다. 물론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여 외부자의 비판을 뒤집어 내부자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일이 최선은 아니다. 우리는 외부자의

11) 오토 마두로, 강인철, 『사회적 갈등과 종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100~101.

비판에 대하여 신념화된 자기 신앙적 감정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그 비판을 객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보다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논자는 내부의 성찰적 주체와 외부자의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사회적 차원(자원)들을 중심으로 공과(功過)를 성찰할 것이다. 교회가 무슨 권위로 정치나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sup>12)</sup> 이 물음에 대한 개신교인의 응답에 따라 신앙의 차이를 반영할 것이다. 믿음 좋은 신앙인들은 교회의 사회참여 문제에 대하여 불편해하거나 부정적이다. 템플(W. Temple)은 기독교인의 현실참여의 원칙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3)</sup>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내부자의 성찰과 동시에 외부자의 비판적 관점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한국개신교의 교회개혁의 동인을 찾고자 한다. 21세기 가장 큰 종교의 위협은 종교가 정치화될 때<sup>14)</sup>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우선 한국개신교의 종교권력에 관한 문제부터 성찰해 보겠다.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을 통한 성찰과 대안

### (1) 정치 : 종교권력(religious power)과 하나님의 정치

한국종교학자들이 지적하는 한국종교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들로 기복주의, 시장논리에의 부역과 현세적 물질주의, 배타주의, 체제지향성, 종교의 탈정치화와 재정치화의 혼재와 연계된 정교(政敎)유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이 한국개신교에 있었다. “한국개신교회가 개인구원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회구원의 지평으로 확대한 것은 1970년대 도시 산업선교 운동과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일부 개신교들이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독특한 특징은 교회 안팎으로 볼 때, “극단적 배타주의, 성서 문자주의, 편리하게 사용되는 정교분리주의, 개인구원중심주의로 점철된 획일주의적 주류개신교다.”<sup>15)</sup>

개신교의 종교 권력화의 움직임은 199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기독교 진보 진영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들어 협력과 적응을 한 반면, 1987년 민주화 이전 암묵적 동조 내지 사회적 침묵을 지켜 온 기독교 보수 진영은 1990년대 이후 정치적 행동을 통해 현실 참여를 하였다.<sup>16)</sup>

---

12) 윌리엄 템플, 김형식, 『기독교시민의 사회적 책임』(서울: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0), 30. 교회는 내세의 희망과 관련된 개인적인 신앙 행위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는가? 템플은 교회의 사회개입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 둘째, 사회 경제체제의 교육적 영향력, 정의의 이름으로 제기되는 우리의 현재 체제에 대한 도전, 셋째,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찾아내기 위해 ‘자연질서’에 부합해야 할 의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어떤 활동도 교회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4~43. 참조.

13) 윌리엄 템플, 위의 책, 103. 그는 세 가지 파생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자유, 동료애(공동체성 및 연대감), 헌신과 봉사.

14) Jonathan Sacks, 임재서, 『차이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서울: 말·글·빛냄, 2007), 82.

15) 장석만, “한국개신교의 또 다른 모색,” 70호, 2005년 봄, 『역사비평』, 103~120. 참조.

16) 그러한 하나의 예가 1997년 조직된 ‘기독교 시국대책협의회’다. 김준근(CCC 명예총재), 조용기, 김기수 등이 ‘정치권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독교 정당(기독교당) 창당을 시도하였다.

2003년을 전후로 하여 대형교회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진보개신교 일부 지도자들의 정권 참여 제외) 기회 상실을 만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전략은 기회를 빼앗아간 정부를 기독교 대중으로부터 분리하고 그 정부를 기독교 대중으로 포위하는 전략을 세운다. 전략의 핵심은 정권의 성격을 친북 반미 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sup>17)</sup>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북미관계의 악화, 경기침체 및 사회의 양극화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참여 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을 때,<sup>18)</sup> 등장한 보수성향의 단체들로는 자유주의 연대, 교과서 포럼, 뉴라이트 싱크넷, 뉴라이트 네트워크, 뉴라이트 전국연합(김진홍 목사 상임의장), 기독교 뉴라이트(2006년 발족)가 있다.

이 시기의 기독교의 정치참여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 뉴라이트연합, 기독교 등과 같은 개신교 우파 진영이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으로 규탄하는 동시에 선진화 담론을 내세워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공격한다. 또한 종교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민주화 시대 종교계 정치참여의 특징은 우파 정권의 창출을 위한 정치세력화에 있다. 즉 보수개신교 진영의 교단 연합기구, 종교 NGO, 종교정당 등이 세력을 과시하였다.<sup>19)</sup>

이명박 정부의 등장(2008년)으로 개신교 진보 세력이 위축되었다. 진보의 약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세계화된 경제의 조건들 아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을 비판하는 데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진보세력은 지도력의 부재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개신교 헤게모니 세력이 재편성되고 그 세력의 정치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개신교의 사회적 이미지는 크게 악화되었다. 보수세력이 교회 안에서는 교권주의 세력으로, 교회 밖에서는 더 큰 권력 획득을 노리는 권력 지향세력이 되었다. 이로써 사회적 신인도가 떨어졌으며,<sup>20)</sup> 이런 현상은 힘(power)의 승배 경향을 띤 한국개신교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다.<sup>21)</sup>

1990년대 이후 한국개신교가 현실참여를 통해 종교권력을 갖게 됨으로써 각종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개신교는 점차 신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 샘물교회 아프카니스탄 봉사단 인질 사태는 일반 사회의 상식(외부자)과 일부 개 교회(내부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정치와 기독교적 권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정부가 특정종교의 가치와 규범, 체도를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종교는 이제 순전히 시민들의 자발적 헌신과 참여에 의존하는 사회의 공적 영역이 된 것이다.<sup>22)</sup> 우리는 공적 삶을 외

17)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2003년 1월 시청 앞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 ‘반핵반김 3.1 국민대회’, ‘3.1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금식기도회’ 등이다. 뉴스앤조이, 2004.1.20.

18) 정해구, “뉴라이트 운동의 현실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220. 『역사비평』, 76호 2006 가을.

19) 이진구, “현대 한국종교의 정치참여 형태와 그 특성,” 26이하 참조. 한신인문학연구소, 『종교문화연구』, 2008.

20) 강원돈, “한국 개신교 정치세력화의 현실과 과제,” 68. 한신인문학연구소, 『종교문화연구』, 2008.

21) 최형묵, 『한국 기독교와 권력의 길』 (서울: 로크미디어, 2009), 23. 그는 여기에 한국개신교의 심층에 자리한 중요한 동기들이 있는 데, 하나는 경제적 성장주의를 신앙의 성취로 인식하는 현세주의이며, 또 하나는 타자와의 소통보다는 일방적 태도를 고수하는 자기중심주의라고 본다.

면하는 개신교와 영적 관계를 외면하는 세속적인 정치 사이에서 시달려 왔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력 없는 개신교 영성과 영혼 없는 정치, 둘 다 문제인 것이다.<sup>23)</sup> 역사상 기독교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권력화에 대한 개신교의 하나님의 정치는 기독교적 사회정의, 공정한 분배, 공공선의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평신도의 정당정치에 참여하도록 훈련시키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2) 경제 : 종교경제(religious economic)<sup>24)</sup>와 하나님의 경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다. 한국개신교는 자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무신론적 세계관(사회주의 세계관)을 기초로 한 물질 숭배와 결합되어 있으며, 경제체제의 지원자와 관용자가 됨으로써 신앙을 사적 구원과 복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sup>25)</sup>

최근에 방한 한 종교사회학자 젠킨스(Philip Jenkins)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상황에서도 성장했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놀랍게 성장한 반면, 부유하고 안정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쇠퇴했다.”<sup>26)</sup> 이 말은 한국 교회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개신교의 성장이 둔화된 것도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sup>27)</sup>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성장이 멈추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오히려 교인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원규는 경제 수준이 향상되어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여가산업의 번창으로 종교적 관심을 약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교회성장이 둔화에 한 몫하고 있다고 본다.<sup>28)</sup> 또한 그는 1997년과 2008년에 있었던 한국사회의 경제위기는 경제운리의 부재 및 기업운리의 부재로 인한 도덕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본다.<sup>29)</sup>

22) 강인철, “한국사회 5대 권력: 역사와 그 성격,” 124. 『역사비평』 통권77호 2006 겨울. 한신대 강인철교수는 종교권력의 최근의 양상들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 종교의 대내적 권력화, 종교의 대외적 권력화, 민주화가 가져온 종교권력 - 로 정리하고 있다. 거대종교(불교, 천주교, 개신교)들의 사회적 힘과 영향력은 증가되었고, 민주화 이후 강화되었다. 그러나 영향력에 걸맞는 공신력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공신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종교조직으로의 충원은 감소하는 반면, 종교조직으로부터 이탈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 짐 윌리스, 정성목, 『하나님의 정치』 (서울: 청림출판, 2008), 25.

24) ‘종교경제’란 도널드 밀러에 의하면, 종교를 경제적 용어로, 즉 시장의 힘과 시장적 분석에 근거하여 보는 것이다. 로저 핑크(Roger Finke)와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가 말하듯이,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로 이루어진 시장과 그 시장을 만족시키려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교 경제religious economies는 시장경제와 흡사하다. ... 종교조직의 성공여부(특히 규제가 없는 경제 상황에서는)는 정책, 성직자, 종교교리, 복음화 기법에 달려 있다.” 재인용, 도널드 E. 밀러, 이원규,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서울: kmc, 2008), 18.

25) 올리히 두크로, 손규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생명을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서의 정치경제학』 (서울: 한울, 1997), 10. 두크로의 ‘한국어판에 부치는 글’에서.

26) 『아름다운 동행』, 2010. 10.

27) 2005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1995년의 876만 명에서 2005년의 862만 명으로 10년 사이 14만 명이나 감소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에서 18%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 숫자는 같은 기간 동안 교인 수가 220만 명이나 증가한 천주교와 너무 대조적이다.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동연, 2009). 136.

28) 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감신대출판부, 1998), 184.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가난한 자들의 생명의 공간을 창출하는 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계를 향한 비전은 두 가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소수가 부를 축적하고 풍요를 보장받기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세상의 경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온 피조물의 생명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살림살이, 생명공동체다.”<sup>30)</sup> 후자의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sup>31)</sup> 및 살림의 경제학<sup>32)</sup>은 세상의 경제학과 다르다. 하나님의 경제에 대하여 황홍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경제의 어원 오이코노미아(oikonomia)는 인간의 살림살이와 피조물의 살림살이다. 하나님의 경제는 피조세계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 일과 고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제는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sup>33)</sup>

성경에 보면, 가난은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운명도 아니다. 물질적 복에 대한 성경의 예를 들면, 신명기 26장 11절, 잠언31장에 성공한 남녀 사업가가 등장한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면은, 자유 시장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 사회적 유대를 붕괴시키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격리하며 성공한 자의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경향이다.<sup>34)</sup>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 한국사회를 위한 종교경제의 첫 번째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경제’는 두크로의 이중의 전술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기본욕구의 충족을 위한 지역적 경제의 강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자원, 즉 민족적이고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의 정치적 규제다. 이와 관련해서 비정부단체나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한 실천을 들 수 있다.<sup>35)</sup>

둘째로 한국개신교는 금융자본의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적 거버넌스와 공조를 하는 동시에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를 통해 투기에 기초하지 않은 금융체제를 주장해야 한다.<sup>36)</sup> 하나의 실례로서 1998년 하라레의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서, “세계화 논리는 다양성 속에서 공동체를 추구하는 대안적 생활방식에 의하여 도전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후, 2006년 총회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된 상황 속에서 신앙 실천을 위한

29)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동연, 2009), 228.

30) Lukas Vischer, “How Sustainable Is the Present Project of World Trade?”, in Julio de Santa Ana (ed.), *Sustainability and Globalization*(Geneva: WCC Publication, 1998), 42. 황홍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생명선교”, 98~99. 재인용. 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신자유주의 시대, 평화와 생명선교』 (서울: 동연, 2009).

31) 더글라스 믹스, 홍근수·이승무, 『하느님의 경제학: 신론과 정치경제학』 (서울: 한울, 1998). 한편 이근영은 『기독교 경제학』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경제 현상을 다루는 학문을 소개하고 있다.

32) 리처드C. 휴닝, 박기영, 『살림의 경제학』 (서울: 주영사, 2010) 사유재산과 경제에 대한 성경적 이해 제공.

33) 황홍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생명선교”, 99.

34) 조너선 섹스, 『차이의 존중』, 172~73.

35) 올리히 두크르, 손규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11.

36) 장운재, “신자유주의의 종언”, 34. 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신자유주의시대 평화와 생명선교』 (서울: 동연, 2009)

‘생명의 경제’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sup>37)</sup> 이러한 하나님의 경제는 나눔, 지구적 연대, 인간의 존엄, 창조세계의 보전을 중시하는 생명의 경제요 대안의 경제다.

셋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사회적 기업, 기독교 사회책임투자 운동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sup>38)</sup> 한국교회 내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교회와 기독교NGO가 저소득층과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고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만들고, 마이크로크레디트와 같은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펼치면서 기독교 내 운동을 넘어 대사회적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대표적 사회적 기업으로 열매나눔재단, ‘기아대책’의 행복한나눔, 사회 환원 취지로 설립된 ‘사랑의줄잇기’가게 등이 있다.”<sup>39)</sup>

이와 연속선상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전개할 수 있는 것으로 착한 소비 운동 혹은 윤리적 소비생활운동을 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는 개 교회나 교단 총회의 연금, 개인의 예금이나 투자 등 모두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책임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sup>40)</sup> 최근의 한국사회복지금융설립대회(2010. 11.1. 장충체육관)를 통한 ‘기독교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종교경제의 대안으로 시장이 부를 창출하는 만큼 분배를 통한 희망의 경제(사회정의, 공정한 분배, 공공선)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한국개신교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며 부흥할 것이다.

### (3) 사회 : 시민사회운동(social movement)과 기독교인다운 영성(christian spirituality)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삶의 양식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

---

37) 하나님의 생명집(God's household of life)의 다섯 가지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제는 넉넉한 경제로, 만민에게 풍요를 선사하고 그것을 보전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제는 그 풍요한 생명을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경제는 나눔, 지구적 연대, 인간의 존엄, 창조세계의 보전을 중시하는 생명의 경제이다. 하나님의 경제는 전체 오이쿠메네, 즉 온 지구공동체를 위한 경제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우대적 선택은 하나님의 경제의 증표이다. *Christian faith and the world economy today*(Geneva: WCC, 1922), 29이하에 실린 WCC 문서 “경제정책 결정을 위한 기준들”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 김승환, 『경제세계화와 아가페운동』 (원주: 휴과 생기, 2007), 16~7.

38) 러셀 스텍스, 『사회책임투자: 세계적 혁명』 (서울: 홍성사, 2007)과, 채수일,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 돈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기독교사상』 2001.1. 참조. 사회적 기업이란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고용과 이윤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되, 이윤을 사용하는 목표가 주주에게 환원하는 개인적인 배당에 있지 않고(주주에게는 제한적인 배당을 하고), 오히려 사회적 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창시자 유누스 박사가 선정됨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권영준, “공동체적 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 168~69. 『교회와 사회봉사 현장』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0).

39) 목회와신학 편집부, 『교회와 사회봉사 현장』, 202이하.

40) 장윤재, “신자유주의의 종언”, 59~60. 참조.

국사회 속에서 이러한 여러 운동들의 시발점이 된 시기가 바로 1990년대의 시민운동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1990년대 한국사회는 한 마디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의 성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시민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종교권력과 종교경제와 달리 개신교가 사회복지와 함께 지난 20년간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다른 종교(불교, 천주교)와 비교할 때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자리에는 항상 시민운동단체들이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수많은 기독교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을 보면 1990년 시민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경실련 중심의 바른 선거 유권자운동과 서울 YMCA가 보여준 10만인 유권자위원회 형태의 유권자운동 등이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들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마다 관계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sup>41)</sup>

1990년대는 여성, 인권, 환경, 장애인, 정보화, 교통, 도시 등 계급 문제로 환원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시민운동은 외연이 확장되었고, 문제의식 또한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인터넷의 대중적 사용으로 인한 각종 자발적 조직들의 발전과 각종 구체적 분야별 조직들이 생성되어 발전하였다. 문화연대, 반부패국민연대, 지구촌 나눔운동, 시민행동, 납세자연맹,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은퇴자협회, 녹색교통이 중심이 된 보행권네트워크, 시민행동의 예산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의 관공비 네트워크, 기독교NGO 등이 있다.”<sup>42)</sup>

한국개신교는 개인윤리적 차원의 논의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 사회변혁의 문제를 선도해 나가는 사회윤리적 실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기독교 내 지성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 싱크탱크 같은 전략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은 담론 생산에 머물러 있지만, 진보진영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라든가 보수진영의 ‘한기총 기획단’, 신학자 140명이 참가한 ‘성경을 통한 재정향 2008년 6월 서울선언’에 이어 신앙과 삶, 교회생활과 예전을 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위한 지침서’ 발간을 위한 준비 모임 등을 비롯하여, ‘기독법률가회(CLF)’, ‘에드보켓코리아(AK)’, ‘법무법인 로고스’ 등 여러 긍정적인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운동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개신교인들에게 어떻게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주었는가? 물론 개신교인의 정체성이 시민사회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나타났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외부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시민들에게 대안적 사회상과 장기적 운동 전망의 부재를 가져왔다. 즉 시민운동 활동가들의 상호 교류와 역량 보완이 상당히 집중되어 왔지만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sup>43)</sup> 예를 들어 경

41) 하승창, “1990년대 시민운동의 유산과 새로운 모색,” 46.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모색과 쟁점』(서울: 이채, 2005).

42) 하승창, 위의 글, 49.

실련이나 참여연대 또는 녹색연합 등에서 제시해왔던 것들과 구별되는, 그야말로 개신교만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확실히 인정받을 만한 새로운 것이 있었는가?<sup>44)</sup> 내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운동에서 기독교인다운(Christian) 영성을 의식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개 교회 안에서 개신교인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시민운동 그 이상의 의미 있는 변화들, 기독교인다운(Christian) 영성과 삶(spirituality & life)은 없었는가? 성공하는 보수적 개신교회는 포스트모던 세속사회의 도전 앞에 사회복음보다 삶의 의미와 가치관에 새롭고 분명한 응답을 제공하고 있다. 즉 신학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중산층 문화적 경험을 반영하는 변화된 예배형식(특히 음악적 요소를 가미한)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안적 예배(구도자의 예배(seeker's service) 등)와 구체적인 요구를 다루는 수많은 프로그램, 결혼 및 자녀양육 등 사회적 사역(social ministries)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내적치유 및 세미나, 가족치료 상담 및 세미나, 결혼예비학교, 부부교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문화교실 등 개인 및 가족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 때,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 개신교의 가정상담 관련 프로그램들이 가정 해체를 막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sup>45)</sup> 성찰을 통한 기독교인다운(Christian)의 대안은 내부자와 외부자가 종교나 계급에 상관없이 열린사회-다문화 사회를 통해 보편적 가치(사회정의, 공정한 분배, 공공선)를 창출할 수 있을 때라고 본다.

#### (4) 문화 : 문화신학(culture theology)과 문화변혁(culture transformation)

문화는 우리가 사회와 관련 속에서 관계 맺는 하나의 방식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sup>46)</sup> 윌리엄스(R. Williams)의 견해를 참고하여 ‘문화’의 개념을 정리한 벤후저(Kevin J. Vanhoozer)에 의하면, 문화는 체계인 동시에 실행이요, 삶의 의미에 대한 비전(문화세계)이 인간의 의미있는 다양한 활동의 산물인 문화텍스트(culture text)를 통해 표현되고 체험되고 탐색되는 수단이다.<sup>47)</sup>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문화는 기독교인이 문화의 렌즈를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비전과 사회와 관련 속에서 경험되며, 기독교인의 삶으로 표현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관련해서 한국개신교는 한국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 한국문화의 ‘문화유전자’(meme)가 한국개신교회에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도 문

43) 홍윤기, “시민적 정체성과 종교성: ‘새로운’ 시민운동인가 그 ‘심화’인가?”, 166~67.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 『모색과 전망』(서울: 이채, 2005).

44) 홍윤기, 위의 글, 168~171. 참조.

45) 국정원의 한국사회 위기 요인 가운데 중요한 순서대로 발표한 것을 보면, ①가정 붕괴, ②도덕성, ③집단지기주의, ④경제문제, ⑤북한 핵 순으로 나타났다.

46) Kevin J. Vanhoozer, *Every Theology*(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7), 윤석인, 『문화신학』(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40.

47)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에 따르면, 문화는 “의미를 규정하는 체제로서 문화를 통해 사회질서가 전달되고 재생되고 체험되고 검토된다.” *The Society of Culture*(New York: Schocken, 1981, 13).

화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문맹이 한국개신교의 영적 건강에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그렇다.<sup>48)</sup>

한국개신교가 한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복음전도와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문화가 최신의 이상숭배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신학자는 문화를 무조건 멀리하거나 수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한국개신교가 한국사회 속에서 맡은 문화 관련 책임에 대하여 문화신학자인 톨리히(Paul Tillich)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

“종교는 문화의 내용(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테제2)”<sup>49)</sup>고 말한 톨리히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문화와 한국의 개신교가 서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와 개신교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문화신학은 모든 문화현상 그 배후에 작동하는 인간의 ‘준 궁극적 관심’(준극성:penultimate)들의 정체를 ‘새로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문화변혁에 공헌하였다.<sup>50)</sup> 톨리히 문화신학의 과제는 거칠게 말해서 두 가지다. 하나는 종교가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며, ‘인간 정신의 삶의 깊이의 차원’이다. 모든 인간 활동의 그 깊이의 차원에 감추어져 있는 그 종교성의 진정성을 가름하고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는 과제다. 다른 하나는 정치나 경제 현실 속에 숨어 있는 마성적인 요소를 비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따라서 문화신학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현실을 복음의 빛과 그 현실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상숭배적인 것을 비판하고 해석하는 일에 있다.

한국교회 내 문화를 통한 사회에 기여한 바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신앙경험과 문화적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개신교인은 문화적 사명을 가지고 응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문화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친구를 초청하여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개 교회는 교회 내 맞춤형 새신자 초청잔치나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에서 문화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심과 구원을 경험케 하는 행사 등을 실천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신교인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문화체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문화의 도구로서 개신교 내 문화매개체로서는 기독교 신문,<sup>51)</sup> 출판,<sup>52)</sup> 잡지,<sup>53)</sup> 기독교 라디오 및 텔레비전,<sup>54)</sup> 교회 웹 사이트,<sup>55)</sup> 교회 내 인터넷

48) 벤후저, 『문화신학』, 52.

49) 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New York: Oxford Press, 1959), 42.

50) 김경재, “문화신학과 정치신학의 상보관계에 관하여,” 25. 한국문화신학회 편, 1집, 『한국종교문화와 그리스도』(서울: 한들, 1996).

51)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기독교 매체를 중심으로 분류했을 경우, ‘기독교 신문’이 80여 종이 있다.

52) 한국기독교출판협회 <http://www.kcpa.or.kr> 자료에 근거 170여 종이 있다.

53) 가정사역 및 상담연구소에서 출판된 월간지, 『가정과 상담』, 『상담과 치유』 등, 문화연구소 관련 문화선교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오늘』이라는 격월간지, 큐티류 잡지 등 수십 종이 이른다.

54) 『한국신문방송연감』에 따르면,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CBS TV, C3TV, CTS기독교TV 가 있다.

55) 국내 기독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기독교정보탐정’에는 2,400여 개 교회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다. 천영철, “교회와 인터넷”, 338~39. 참조.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포럼,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방송<sup>56)</sup> 및 교회 홈페이지, 문화교실, 문화강좌 등이 있다.<sup>57)</sup> 최근 기독교문화 확산을 위해 발족한 ‘기독교문화연대’(2010.11.13. 부산 동서대)는 기독교문화 생산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과 콘텐츠 공유, 기독교문화 유통자의 정보공유와 상호협력, 기독교문화소비자 권익보호운동을 전개한다.<sup>58)</sup>

한국개신교가 복음 수행을 잘하려면, 우리가 성경과 문화 모두를 잘 알아야 하며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꼭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개신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문화, 복지, 선교를 위한 한국개신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망해 보겠다. 이것은 복음을 통한 문화선교와 교회개혁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 3. 한국개신교의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 : 문화복지 및 문화선교

#### (1) 시민사회운동과 문화복지

21세기 한국사회 속에서 한국개신교를 전망할 때 여러 차원의 역할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 시민사회운동 및 문화복지, 문화선교 및 교회개혁 - 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우리의 정치나 경제 현실 속에서 전망은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다. 시민운동은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개인주체의 형성을 도와야 한다. 성찰성과 비판의식을 갖춘 개인주체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전근대적이고 특수주의적인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을 바꾸어야 한다.<sup>59)</sup> 또한 정치중심의 사회운동을 주장하던 조희연도 사회운동의 변화 방향을 정치세력화론, 전문성 강화론, 생활세계 공동체 운동으로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은 개인주체 형성과 문화적 교양층의 형성을 통한 사적 영역의 변화가 시민운동의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sup>60)</sup> 그러나 반대로 한국 개신교가 시민사회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려면 교회가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개신교는 시민운동이 하지 못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사회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복지와 문화선교를 중심으로 전망을 모색해 보겠다.

문화복지(culture welfare)란 가치의 표현 및 의미체계로서 문화, 사회사업(social action) 및 사회봉사(social service), 문화교육(culture literacy)으로서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다.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현실참여는 시민운동과 함께 문화복지(=사회사업 및 사회봉

---

니케이션』(서울: 예영, 2004)

56) 온누리 인터넷 방송국, 사랑의교회 인터넷 방송국, 순복음 인터넷 방송국 등 선교단체나 개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미디어들이 있다.

57) 각종 매스미디어들, 기독교방송국, 언론, 신문, 등등.

58) 국민일보, 2010.11.11.

59)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문법』, 524.

60) 정수복, 위의 책, 525.

사,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 시설면에서 장애인복지 시설의 52%, 아동복지 시설의 78%, 노인복지 시설의 44%, 정신요양 시설의 53%를 개신교가 운영하고 있다. 구휼활동에 있어 수재의연금(1996~2002년)의 69%, 대북 인도적 지원(2001~2003년)의 51%, 해외 인도적 지원(1996~2002년)의 65%를 개신교가 담당했다.<sup>61)</sup> 그동안 개 교회별 자원봉사는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신교 사회봉사 활동으로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었다. 태안 앞 바다 기름 띠 제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80%가 기독교인이었다.”<sup>62)</sup>

최근까지 한국개신교는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분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한 데 모아 행복한 복지한국의 비전을 선포한 행사가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이다. 이 행사는 교단 및 교파와 신학의 차이를 극복하고, 봉사로 하나 된 한국개신교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 교회의 사회복지가 전도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식의 교회성장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복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본적인 삶의 표현과 의미실현, 예언자적 통찰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문화복지의 구체적인 기독교 내 프로그램으로는 크리스천 라이프센터<sup>63)</sup>, 열매나눔 재단,<sup>64)</sup> 지구촌 나눔 운동,<sup>65)</sup> 한국 해비타트,<sup>66)</sup> 대한민국 교육봉사단<sup>67)</sup>, 새로운 기부문화 트렌드,<sup>68)</sup> 개 교회 및 지역별 문화교실과 문화센터 등을 들 수 있다. 문화복지(culture

61) 김홍권, 『좋은종교 좋은사회』(서울: 예영, 2008) 이 외에도 2002~2004년 사이 현열자의 92%, 골수 기증자의 41%, 장기기증자의 44%가 개신교인이었다. 재소자 자매결연의 52%, 불우수용자 및 가족 돕기의 60%가 개신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스피스 기관의 86%가 개신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62)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서울: 동연, 2009), 142. 해마다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교도소, 병원 등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개신교인, 도시 빈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돌보는 개신교인, 해외까지 나가 의료, 교육, 복지 등을 통해 자원 봉사하는 개신교인,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선혈을 드러내지 않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개신교인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63) 교회와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을 보면, 사회교육원, 문화센터, 노인대학, 장애인사역, 아동복지 사역, 아동복지 사업(방과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아기학교, 어린이집 운영 등), 복지관(재단)설립 운영, 의료봉사(병원봉사), 외국인 근로자 선교, 장학사업, 미혼모시설, 상담센터, 노숙자·여성·가족 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봉사원 파견, 자활후견기관 등 지역복지 관련기관과 협력사업도 하고 있다.

64) 여기서는 2차적 사회복지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 관련 일도 하고 있다.

65) 글로벌 사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찾기,

66) 1995년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설립,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사역 등을 하고 있다. 『목회와 신학』 2007.7. 소개.

67) 씨드 스쿨Seed School로서 정부 통합서비스 프로그램(드림스타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민간 통합서비스 프로그램(희망네트워크, 기아대책, 위스타트, 행복한 홈스쿨)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는 기독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있다.

68) 1990년대 후반 이래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부 트렌드가 형성되었다. 첫째로 금전중심에서 시간과 재능 나눔으로, 둘째로 기부 수단이자 매체로서 인터넷 기부 증대, 셋째로 포인트가 마일리지 기부 활성화, 넷째로 ‘1%나눔 운동’과 같은 소액 기부자로 참여폭 확대, 다섯째로 소액펀드 조성사업,

welfare)와 함께 한국사회 속에서 한국개신교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는 문화를 통한 사명(culture mission)이다.

## (2) 문화선교(culture mission)와 교회개혁(church reformation)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면서, 갈등의 총체적 해결을 위해 사회생활의 의미 차원(Kathryn Tanner)으로서 제도과 가치관 및 의미체계로서 ‘문화’가 중요해졌다. 다른 선진국 사회도 치열한 갈등을 겪었지만, 그들 사회 밑바탕에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극복하였다. 이제 그 문화적 자원이 한국개신교에도 요청되고 있으며 개신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한국개신교에 요청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화의 교회적 측면은 문화에 대한 신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9)</sup>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문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제공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현대는 문화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시대다. 최인식은 한국개신교가 다원주의적 상황을 거부(비타협)할 경우, 복음은 유지하겠지만 문화를 놓치게 됨으로서 세속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실재(reality)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종교간의 대화와 유일성의 문제는 현실적 대립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적당한 긴장이 요구된다. 이 긴장마저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한국개신교의 다원주의적(다종교적) 상황에서 타 문화권(종교권)의 선교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sup>70)</sup> 여기에 대한 개신교의 대안은 문화를 통한 소통으로서 사명(culture mission: 문화선교)이다.

문화선교는 문화를 통한 변혁으로서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 속에서 개신교의 선교의 대안이다. 우선 개신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면 개신교는 이미 타락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sup>71)</sup> 우리 마음 속에 이웃이 삭제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타종교인들을 배척하거나 사탄 운운하는 것은 이분법적 신앙의 문법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다. 이처럼 우리 교회만을 강조하며 타교회·교파와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징조다.

다음으로 조지 헌터(George Hunter)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지금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사이에 ‘문화지체(culture lag)’를 경험하고 있다.<sup>72)</sup> 문화지체란 비물질적인 문화가 물질적인 문화보다 느려서 그 간격이 커지는 현상을 오그번(W. Ogburn)이 지적한 데서 온 말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신문화에 있어서 물질문명과 문화적 타성에 젖어 저항과

여섯째로 유증(bequest, 동산을 유언으로 양도하는 것) 확산. 황창순, “새로운 기부문화 트렌드,” 62이하. 목회와신학 편집부, 『교회와 사회봉사 현장』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69) 한국문화신학회, 『한국종교문화와 그리스도』 (서울: 한들, 1996), 110. 최인식은 “문화와 종교”에서 문화신학의 본질과 과제를 다루면서 요약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화는 종교를 요청하고, 종교는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현대의 문화신학은 바로 이러한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최인식, “문화와 종교”, 110. 참조.

70) 최인식, “문화와 종교”, 한국문화신학회, 『한국종교문화와 그리스도』 (서울: 한들, 1996), 118.

71) 찰스 킴블, 김승욱, 『종교가 사악해질 때』 (서울: 예코리브르, 2005), 63.

72) George Hunter, *How to Reach Secular People*(Nashville: Abingdon, 1992), 38. 재인용. 지미 룡, 위의 책, 276.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개신교는 체계인 동시에 실행이요, 문화세계가 문화텍스트를 통해 경험되는 수단(K. Vanhoozer)으로서 문화이해와 기독교인이 문화의 렌즈를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비전과 시민사회에 자생적 공간을 심화시키면서 시장에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 기독교문화를 이해해야 한다.<sup>73)</sup>

그렇다면 이분법적 신앙 - 우리와 타자,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 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문화로 소통하는 것이다. 복음 증거에 문화를 통한 소통(culture communication)으로서 사명을 ‘문화선교’라고 할 수 있다. 임성빈은 한국개신교 “문화선교는 한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변혁적 문화관을 가지고 실천을 모색하되, 문화신학(이론)과 문화사역자(실천)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sup>74)</sup>고 말한다.

문화선교는 개 교회를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와 사회 전반, 세계 교회와 인류 전체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mission)에 문화를 가지고 동참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필요한 행동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sup>75)</sup> 문화선교는 문화변혁을 말하며, 문화변혁은 곧 교회개혁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선교의 주체는 문화 창조자로서 주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와 복음을 말할 때, 흔히 ‘문화변혁’을 말해왔다. 우리는 문화변혁을 말하지만 실은 문화가 우리를 변화시켜왔다. 크라우치(Andy Crouch)에 의하면, 문화변혁은 바로 교회가 문화의 이미지에 맞춰 변화된 것이었다. 그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mission)의 핵심이자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맡겨진 소명(calling)이라면서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역설적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문화 창조자가 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다.”<sup>76)</sup>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문화변혁의 대안은 대안적 소비도 아니며, 창조성만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다.<sup>77)</sup> 우리는 문화소비의 주체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은 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종속되어 세속문화 속에 매몰되어 문화소비자로 만족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변혁의 주체로서 살기 위해서는 크라우치의 지적대로 진정한 ‘문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문화 창조자는 우선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문화세계와 비판적 거리두기를 함과 동시에 문화텍스트(예술창작, 직장 및 사업장, 온가족이 주일성수 등)에서 일상의 거룩한 예술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상적 만남을 체험한다. ‘서울기독교영화제’, ‘기독교문화예술창작대회’(CBS창작CCM경연대회 등), ‘기독교 결혼식 및 추도예식’, ‘장묘문화대안’<sup>78)</sup> 등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3) 윤평중, “종교의 권력화와 종교성의 망실” 56이하. 이라는 글에서 ‘보편적 가치 준거들’을 열거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종교역할’을 강조한다. “인권, 인간의 존엄함, 평화와 사랑, 연대, 다른 것에 대한 연민, 자유, 평등, 생태주의적 감수성과 복지이식, 국가의 강제력과 시장논리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찰적이고 인간적인 시민사회의 자생적 공간을 심화시키는데 봉사해야 한다.”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07. 겨울 75호.

74) 임성빈, “새천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과제로서의 문화선교” 33. 기독교실천운동 신학위원회, 『교회와 사회』 (서울: 성광문화사, 2002).

75) 김문환, 『문화선교와 교회갱신』 (서울: 도서출판엠마오, 1995), 55.

76) 앤디 크라우치, 박지은, 『컬처 메이킹』 (서울: IVP, 2009), 250.

77) 앤디 크라우치, 위의 책, 93.

둘째, 문화선교의 목표는 문화공동체 형성이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과편화된 사회 속에서 살면서 다양한 공동체 및 소그룹에 속해있거나 거기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공동체는 매우 중요하다. 맥클라렌(Brian M. McLaren)은, “기독교가 삶을 변화시키며 화해와 공동체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인도하는 것”<sup>79)</sup>이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에서 그 구성원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신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도록 구비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교회는 공동체와 영성과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sup>80)</sup>고 말한다. 지미 롱(Jimmy Long)도 문화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 대응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 밖에 있는 타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sup>81)</sup> 이들의 공통점은 기독교 공동체(community)<sup>82)</sup>다. 따라서 내부자가 다문화 사회를 향해 문화로서 소통하려면 기독교문화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문화선교의 방향은 공동체로서 교회개혁이다. 21세기 한국개신교의 교회개혁을 위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문화를 통한 선교를 할 것인가? 이 물음의 응답이 교회개혁을 위한 단초다. 문화선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진자의 응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부자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후자에 대한 응답은 교회 밖의 외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면, 내부자에게는 자기 갱신(미학적 회심)<sup>83)</sup>과 예배개혁(영적감각)<sup>84)</sup>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구현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신학교든 교회공동체든 문화선교를 위한 교회개혁 방법은 교육과 예배를 통해서다. 이것은 세상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화선교를 감당할 주체를 교육시킴(culture literacy:문화교육)과 동시에 다음세대를 위한 예배의식(영적감수성 및 미적감각)과 미래설교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감각을 깨워주는 차원의 개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개신교의 교회개혁을 위한 전망으로는 개 교회, 노회, 총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다음 문화텍스트 해석 방법과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독교인 생활 지표(Christian Life Profile)를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선교를 통한 교회개혁은 소그룹(10~20명)과 소그룹을 잇는 작은 교회(50~200명)로서 영성공동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요컨대, 한국개신교는 정치권력과 종교경제를 거부하고, 성숙한 사회

78) 국민일보, 2010.9.30. 서울 안국동에 있는 안국교회는 ‘추모의 벽’ 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장묘 문화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건축가 김기연 교수 제작).

79) 브라이언 맥클라렌, 김선일,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서울: IVP, 2008), 299.

80) 브라이언 맥클라렌, 위의 책, 301.

81) 지미 롱, 신현기, 『새로운 청년사역이 온다』 (서울: IVP, 2009), 113.

82)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공동체적(사회적) 삼위일체론’이다. 이는 상호간에 섬기고, 돌보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적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83) 미학적 회심은 리처드 빌라데서(R. Viladesau)가 미(美)의 추구가 영성의 추구와 조화롭지 않다고 하면서, ‘미학적 회심’(aesthetic conversion)을 제안한다. 즉 미학적 회심이란 사회 속에서 미에 대한 인식이 도덕적·지성적·종교적 회심 속에서 영화(glorification)와 함께 이루어져 한다. 『신학적미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84) 다음세대 젊은이들에게 개신교는 성경의 사건과 교리를 이성적으로 가르치거나 훈련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감성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정치나 경제 현실을 통해 반성(reflection:자기객관화)과 영적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복지와 문화선교를 통한 문화변혁과 교회개혁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 III. 결론 : 하나님 나라의 성상(icons)으로서 한국개신교

1990년대 이래,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개신교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개신교는 저평가된 ‘한국개신교’ 브랜드를 재고하기 위해서 타종교들과 차별화되는 한국개신교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성경의 가르침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 속에서 문화로 소통하기 위해서 예언자적·영성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가? 제공하고 있다면, 내부자로서 태도와 행동이 기독교인다운(Christian) 것인가? 지금까지 세상과 그 주제(이슈)들을 이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조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결국 올리브나무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사회 속에서 한국개신교의 긍정적인 공헌은 예언자적 사명과 영성적 통찰을 통해 이웃에 대한 화해의 가르침이었다. 문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종교권력화에 대한 개신교의 하나님의 정치는 기독교적 사회정의, 공정한 분배, 공공선의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평신도의 정당정치에 참여하도록 훈련시키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경제는 시장이 부를 창출하는 만큼 분배를 통한 하나님의 경제, 즉 희망의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개신교는 정치권력과 종교경제를 거부하고, 사회복지와 문화선교를 통해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경제는 더 풍성해지고 한국개신교회는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개인윤리에서 사회윤리차원으로 넘어서고 있지만, 개신교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개 교회(내부자) 안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시민사회운동 그 이상의 의미 있는 변화들과 기독교인다운 영성으로 삶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가정해체라는 가장 큰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개신교는 시민사회운동 및 사회봉사, 문화복지 및 문화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상(icons)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